영암 대표 맛집 100선 지도 나왔다

한우생고기·갈낙탕·한정식 등
이름·주소·대표음식 읍·면 별 소개
음식점 800곳 놓고 설문조사 선정

"영암읍 한우 생고기, 학산면 갈낙탕, 삼호읍 한정식, 금정면 양탕…"

영암군이 최근 현지인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자자한 맛집이 담긴 미식관광 지도 '영암 대표음식점 100선'을 발행·배포했다.

이 홍보물은 영암군의 맛집 정보가 담겼다. 홍보물 앞면에는 가게 100곳 이름과 주소, 대표음식이 각 읍·면 별로 나와 있다. 뒷면에는 영암군 전체 맛지도와 영암읍·삼호읍·학산면의 상세지도가 실려있다. 제작된 홍보물은 영암의 관광안내소, 관광지, 숙박업소, 음식점, 카페 등에서 볼 수 있다. 영암군 홈페이지 '관광 Q&A' 게시판에 신청해 받아볼 수도 있다. 이 지도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설문조사와 현장검증을 거쳐 진행된 '2023 대표음식점 100선 선정' 결과를 반영해 제작됐다.

지역 대표음식점 선정에 나선 영암군은, 일반음식점 800개소를 놓고 군민 설문조사로 1차 업소를 선정했다. 이어 음식 맛과 담음새, 업소 외관·환경의 청결, 조리장 위생, 지역 특색 반영 여부 등을 고려해 최종 100개소를 선정했다. 선정된 대표음식점은 노후시설개선 우선지원, 군 홈페이지와 SNS 등 홍보, 위생용품 지원 등의 혜택을 받는다.

영암군 관계자는 "트렌드로 자리 잡은 미식관광 활성화를 위해 영암대표 음식점을 꾸준히 발굴·육성할 계획이다"며 "맛으로 다시 찾는 영암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12일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청사에서 열린 '민관 합동 농촌 빈집 재생 프로젝트' 업무협약식에서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효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 김차진 해남부군수, 이상만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 홍성수 이마트 CSR상무, 조태용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본부장.

해남군 '농촌 빈집 정비' 1호 대상지 선정

정부 민관 합동 재생프로젝트
8억5000만원 투입 20곳 손 봐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농촌 빈집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내놓은 '농촌 빈집 정비 활성화 대책' 1호 대상지에 해남군이 선정됐다.

해남군은 지난 12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남도, 이마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농촌 빈집 재생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맺었다.

해남군은 민관 합동 빈집 재생프로젝트 1호 대상지로 선정돼, 총 8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지역 빈집 20곳을 손본다.

새로 단장한 집은 귀농·귀촌 가구에 빌려주거나 농촌체험마을 방문객을 위한 '마을호텔' 등으로 쓰일 예정이다.

해남군은 빈집을 발굴하고 사업 추진을 총괄한다.

이마트는 농어업 상생협력기금 지정기부금을 지원하고,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비지정기부금 등을 활용해 빈집 재생을 돕는다.

민관 합동 농촌 빈집 재생은 사업 성과에 따라 전국 자치단체에 확대할 계획이다.

김차진 해남군 부군수는 "여러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방치된 빈집에 대한 재생 프로젝트를 해남군에서 가장 먼저 시작해 의미가 깊다"며 "관계기관 및 기업과 협력해 원활한 사업추진에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신안 자은도 양산해변 별 관측 핫플레이스로 뜬다

신안군·광주과학관·관광공사
여행상품 공동 운영·홍보 협약

신안군 자은도 1004뮤지엄파크 내 양산해변은 빛 공해 지수가 전국에서 낮은 곳 중 하나다.

이 때문에 아마추어 천체사진 작가들 사이에서는 별 관측 성지로 주목받는 곳이다. 강원 태백이나 영월 등 산악지대와는 달리 출렁이는 파도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새까만 도화지로 변한 바다라고 믿기 어려울 지평선 위에 쏟아지는 별빛은 한마디로 황홀경이다.

신안군이 이런 양산해변을 '별 관측' 체험 여행 성지로 만들 계획이다.

신안군은 최근 국립광주과학관, 한국관광공사(KTO) 광주전남지사 등과 별 관측 관광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과학 주제 여행상품 공동 운영 및 홍보 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군은 업무 협력을 계기로 별 관측 여행하면 신안을 제일 먼저 떠올릴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 계획이다. 별 관측 여행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자은도 양산해변은 빛 공해 지수가 전국에서 낮은 곳 중 하나로 천체 사진 작가들 사이에서는 '핫 플레이스'"라면서 "양산해변을 별 관측의 성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양산해변에 쏟아지는 별빛.

진도군, 지역수산단체연합회 정책 간담회

日 오염수 방류 대응책 등 논의

진도군이 최근 진도군수산단체연합회와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수산단체연합회 회의실에서 이번 간담회에는 김희수 진도군수를 포함, 군 관계자들과 수산단체연합회(회장 이광회) 회원, 12개 직능별 단체회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당면 현안과 주요 협조사항, 질의·응답, 건의사항 청취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간담회를 통해 해양수산사업 추진방향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따른 대응상황, 마로해역 관련 추진상황, 해양환경 보호활동 강화 등 수산업계가 직면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특히 수산단체연합회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마로해역 갈등 대응 등 어업인들이 처한 어려운 상황에 대해 군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수산인들이 겪고 있는 힘든 상황과 우려에 깊이 공감한다"며 "앞으로 수산인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수산인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

무안 실내 수영장·골프연습장 휴장

17일부터 45일간 개·보수 공사

무안군은 17일부터 스포츠파크 실내수영장과 골프연습장 정비 공사를 위해 휴장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실내수영장은 이날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45일간 쉬고, 골프연습장은 8월6일까지 21일간 휴장한다.

무안군 실내수영장은 지난 2009년 12월 준공됐으며, 골프연습장은 2012년 지어졌다.

무안군은 휴장 기간 15년 된 자동제어시스템을 고쳐 이물질 유입을 방지하고, 수영장 기계설비를 개·보수한다.

골프연습장에서는 공 회수용 맨홀을 정비하고 물이 새는 집수정에 방수 처리를 할 계획이다.

이 시설들은 유료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다. 수영장에는 590명의 회원이 등록돼있고, 골프연습장은 600명 회원이 있다.

무안군 관계자는 "스포츠파크 수영장과 골프연습장의 시설 노후화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긴급하게 개보수 공사를 진행하게 됐다"며 "스포츠파크는 많은 군민이 이용하는 곳이므로 개·보수 공사를 완벽히 해 앞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체육 환경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완도의 건강한 맛 '해양치유 밥상' 2호점 지정

완도회타운 10가지 메뉴

완도군이 최근 해양치유 밥상 2호점 지정식을 가졌다.

해양치유 밥상 2호점은 완도읍에 있는 완도회타운으로 전복죽부터 생선튀김, 해초 샐러드, 해물 모둠, 회(전복, 광어, 제철 생선회 2종), 전복 해초 물회, 어전 쟁반, 장어 철판구이, 해초 돌솥밥 등 10가지 메뉴다.

특히 어전 쟁반은 군과 길 신문화전략연구원, 업체가 함께 개발한 음식으로 생선 뼈를 장시간 고아 만든 육수에 각종 채소와 생선 전, 활전복 등을 약한 불에서 끓여 특제소스와 함께 먹으면 별미이다.

해양치유 밥상은 '치유의 섬' 완도만의 건강한 메뉴를 보급하기 위해 개발됐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